



강북신문



행정보건위원회가 12월 1일부터 3일까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은 예산 심의장면.

강북구의회 2011년도 예산안 심의

행정보건위원회, “관내업체와 구민 우선으로 사업추진” 강조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이영심)는 12월1일부터 3일까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 등으로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금년도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2011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 되었는지,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었는

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고 있다.

특히,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의원들 전원은 관공서에서 체결되는 각종 사업 추진시 관내업체를 우선 활용하고, 인원 채용 시에도 구민을 위한 고용이 이루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하여, 건축·토목·전기 등 관내 154개 업체를 발굴한 후 내부 행정망에 게시하여 계약 시 전 부서에서 관내업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북부신문

강북구의회, 행보위 2011년도 예산안 심의 각종 사업 추진시 관내업체와 구민 우선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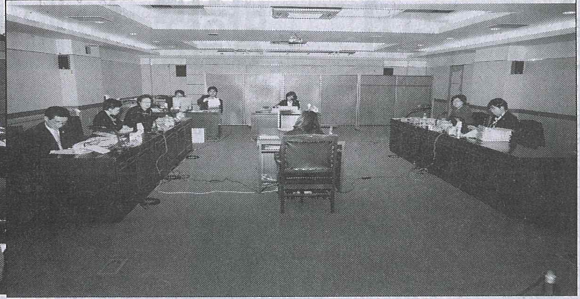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 행정보건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번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이영심)에서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 등으로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구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금년도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2011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 됐는지,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됐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활동했다.

특히,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의원들 전원은 관공서에서 체결되는 각종 사업 추진 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인원 채용 시에도 구민을 위한 고용이 이뤄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해, 건축·토목·전기 등 관내 154개 업체를 발굴한 후 내부 행정망에 게시, 계약 시 전 부서에서 관내업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수시로 관내업체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관내업체와 계약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행정보건위원회는 12월 6일부터 14일까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조례안 심의, 현장 활동 방문 등 구민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 모습(우)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 모습(좌)

강북구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보다 대안 제시를 위한 자리였다는 평가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이영심)와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성열)는 지난 24일부터 7일간 각 위원회 소관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30일에 강평회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에 의거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구정업무의 실행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집행부에 대해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하며 각종 건의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

회 의원들은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방대한 자료를 취합,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보다는 정책 제안자로서 대안 제시를 위한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이영심)는 예산규모가 큰 사업뿐만 아니라 작은 사업도 꼼꼼히 챙겨서 희망 강북 건설을 위해 모두 노력하고, 각종 수익계약 시 관내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 시 관련 증빙서류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인사의 공정성과 예산편성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성열)는 주말 및 공휴일 민원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 공사관련 수익계약 및 공개입찰 시 관내 업체가 적극참여 할 수 있는 방안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많은 만큼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져주기를 집행부에 요청하였다. 또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교육 실시, 장남감 도서관 지원, 복지지도 제작, 폐달식 음식물 쓰레기통 보급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비록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지만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감사 자료의

작성이 미흡하여 의원들이 사업내용과 각종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서 향후 자료 작성 방법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행정감사 기간 중에 지적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복리증진 및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는 평이다.

한편 강북구의회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과 현장활동 등이 진행되며 12월 15일(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최동수 기자 cds0012000@hanmail.com)

강북신문



구정4층 대강당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장면.

강북구의회 7일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집행부에 대한 견제 비판보다 대안제시 위한 감사로 평가대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강평회를 열고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보다 대안 제시를 위한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먼저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이영심)는 예산규모가 큰 사업뿐만 아니라 작은 사업도 꼼꼼히 챙겨서 희망 강북 건설을 위해 모두 노력하고, 각종 수익계약 시 관내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요청했다. 또한,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 시 관련 증빙서류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인사의 공정성과 예산편성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성열)는 주말 및 공휴일 민원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 공사관련 수익계약 및 공개입찰 시 관내 업체가 적극참여 할 수 있는 방안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많은 만큼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져주기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또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교육 실시, 장남감 도서관 지원, 복지지도 제작, 폐달식 음식물 쓰레기통 보급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강북구의회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과 현장활동 등이 진행되며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북부신문

행정보건위원회, 관내업체와 구민 우선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심의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이영심)가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 행정보건위원회는 2010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이영

심)에서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 등으로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금년도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2011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이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고 있다.

특히,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의원들 전원은 관공서에서 체결되는 각종 사업 추진 시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인원 채용 시에도 구민을 위한 고용이 이루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하여, 건축·도목·전기 등 관내 154개 업체를 발굴한 후 내부 행정망에 게시하여 계약 시 전 부서에서 관내업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수시로 관내업체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관내업체와의 계약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한편, 행정보건위원회는 12월 6일부터 14일까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조례안 심의, 현장 활동 방문 등 구민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동정



**북한이탈주민 함께하는 공연
대화한마당 30일 행사 참석**

강북구의회 유군성 의장은 11월 30일 오후 2시 삼각산문화예술회관 행복실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공연 및 대화한마당'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행사는 민족통일 강북구협의회 주체로 북한 바로알기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하였으며, '북한의 3대 세습, 과연 성공할 것인가?'라는 주제 발표 후 '겨레하나 예술단'의 북한예술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공연
및 대화한마당 행사 참석**



강북구의회 유군성 의장은 11월 30일 오후 2시 삼각산문화예술회관 행복실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공연 및 대화한마당'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행사는 민족통일 강북구협의회 주체로 북한 바로알기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하였으며, '북한의 3대 세습, 과연 성공할 것인가?'라는 주제 발표 후 '겨레하나 예술단'의 북한예술공연 순으로 진행됐다.